



대기설법으로 중생을 제도 하시다



‘부처님오신날’ 기념 대중강좌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 ⑦

부처님 일대기를 통해서 배우는 불자 신행

강사: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 불교인재개발원 원장)
 주최: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
 후원: 조계종 포교원
 일시: 2008년 5월 14일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아난존자는 BC569년 성도 후 21년 세수 55세에 붓다의 시자가 되어 전법의 교화 후기 25년의 세월과 열반 그리고 그 이후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을 증명합니다. 붓다의 일생 가운데 전법 후기 시기, 다음은 하안거를 나시며 교화를 펼치신 측면으로 바라본 연표입니다. 현재 조계종단에서 연구 중인 정확한 붓다의 생애 연표의 근거는 80여 가지로 매우 다양합니다. 다음의 연표는 제가 정리한 연표이기 때문에 변동의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해 주십시오.

- BC569년(55세) : 왕사성에서 하안거(일설에는 사위성)기바가 범비사라왕 알현
- BC568년 : 앙골라마라 제도.
- BC567년 : 범비사라왕과 위제회 왕비 사이에 아자타삿투 출생.
- BC564년 : 사위성 기원정사에서 하안거/ 61세에서 78세까지 18년간.
- BC563년 : 사위성에서 하안거.
- BC562년 : 78세까지 16년간 사위성에서 하안거.
- BC551년 : 아자타삿투 왕위 찬탈. 데비왕비 자결. 고살라국과 전쟁
- BC548년 : 고살라국 태자 비두다바가 왕위 찬탈
- BC546년 : 사위성 기원정사에서 하안거 비두다바왕 카필라성 공격 석가족의 멸망
- BC545년 : 왕사성 영축산 유행 사리불 · 목련존자 열반
- BC544년 : 바이살리 벨루바에서 하안거 3개월 유행중 춘다의 공양전당향 나무 버섯 요리를 받고 발병 2월 15일 완전한 열반에 드심

초기의 출가 수행자는 붓다에게 직접 설법을 들은 제자였습니다. 비구 47명, 비구니 13명으로 총 60분의 승려 제자가 있었으며, 10대제자라는 이름으로 열거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경전에서도 기록의 차이가 보입니다. <아함경>에서는 아난존자가 5회, 수보리존자가 2회 거론됩니다.

붓다께서 안거를 나신 기원정사의 연원을 살펴봅시다. 터만 남은 현재의 유적으로 당시의 규모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붓다께서 인도에서 가장 크고 장엄했던 사원이라는 것입니다. 붓다께서 거주하시던 향실(금당) 주변에는 80명의 장로가 거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사원 벽화가 붓다의 열반 이후 그려진 것으로도 추정됩니다. 발굴된 기원정사의 크기는 5억4천만평이 회사되었다고 하며 약 3만 7천여 평으로 121.404m로 추정합니다. 붓다의 성도 후 6년 후부터 공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아난존자의 시봉에 주목을 해봅시다. 다문제일 아난존자는 붓다의 가르침을 가장 많이 들은 비구 제자 가운데 으뜸이었습니다. 마음 행감을 가진 자들 중에 가장 뛰어난 붓다의 가르침을 호지(護持)하였습니다. 교화 전기에는 사리불존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제자들이 시봉한데 반해 교화 후기에는

따뻐수와 발리카 최초로 귀의한 우바세

‘앙굿따라니까야’ 팔정도 중심 수행법 제시

아난존자가 시봉을 전담하여 시자들 중에 으뜸이 됩니다.

이번 대중 강좌의 취지에 맞춰 우바세와 우바이에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재가불자 십대제자 중에 몇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앙굿따라니까야> 제 1권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부처님께 최초로 귀의한 귀의제일의 우바세는 따뻐수와 발리카 상인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미얀마로 향하는 대 상인이었습니다. 초전법륜을 하기위해 사르나트의 녹야원으로 향하는 붓다를 뵈고 공양을 올립니다. 이에 대한 답례로 붓다는 가사와 발우를 내립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현재까지도 불교 성지를 발굴하면서 그 당시 붓다에게 받은 발우를 찾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에는 1995년에 설립된 한국 사찰 ‘고려사주지 조주’가 있습니다.

보시제일 우바세는 ‘급고독 장자(아나빠벤디카 장자)’입니다. 장자는 당시 제일의 재가신도로서 붓다께서도 보시자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라고 칭찬하신 바 있습니다. 장자는 고살라국의 수도 싸타의 대부호이면서 상인이었으며, 무의탁자들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장자가 붓다를 처음 뵈는 것은 붓다의 성도 다음 해에 사업상 마가다국의 라자하(왕사성)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똥이 트기도 전에 죽림정사로 달려간 장자는 새벽 선정에 들어 계시는 붓다에게 예경을 올립니다. 붓다는 장자에게 가까이 앉으라고 권하며 “장자여! 어떤 사람은 번뇌의 불이 모두 꺼져 조용해진 사람이다. 착하지 못한 불선법을 짓지 아니하며, 오욕락(五慾樂)의 대상에 묻지 아니하고 가까이도 하지 않는다. 조용한 곳에 이르러서 업(業)으로 받은 몸이 없다. 그런 사람은 모든 시간 편안히 잘 수 있다.” 이로써 장자는 붓다의 제자로 귀의하게 됩니다.

장자는 붓다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고살라국의 사위성으로 오셔서 안거를 나시기를 청하였고 왕사성에서 사위성으로 오시는 동안 하루에 1요자나를 이동한다는 말씀을 듣고 그 거리 마다 절을 하나씩 지었습니다. 1요자나란 성인 어른이 소달구지를 끌고 점심을 먹고 해질 때 까지 걸어가는 거리로 10시간을 소요하는 40km라고 합니다. 총 45개의 절을 짓고 사위성에는 기원정사라는 큰 절을 지어 공양을 올립니다. 붓다께서는 기원정사에서 16안거를 지내시면서 많은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우바이 심대 제자 중에서 보시제일은 ‘미가라따 우사카’입니다. 남편 ‘미가라’를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인정하며 내조를 잘 하였고, 20명의 아들과 딸을 낳고 120세가 되어서도 늘 젊음을

간직했다고 합니다. 목련존자의 감독 하에 강당을 건축하였는데 1000개의 승방을 만들어 승려의 수행을 도왔습니다. 붓다께서 사위성에 계실 때 위사카에게 “여자가 네 가지 능력을 갖추면 이 세상에서 힘을 얻으리라. 첫째, 남편이 하는 사업에 대한 기술적인 능력과 관리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남편이 하는 사업장의 인력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남편의 마음을 받을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남편이 벌어진 재산을 잘 지키고 관리하여 도둑맞지 않고 탕진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붓다의 교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위의 교화 · 설법 교화 · 수행 교화 · 실천 교화 가 그것입니다. 위의 교화란 계행을 바탕으로 하는 철저한 실천 행으로 자제와 몸가짐의 위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붓다께서도 모든 승려가 한 자리에 모이면 철저한 계행을 가장 강조하셨습니다. 설법 교화는 갖가지 비유법을 통하여 상대의 근기에 부합되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깨달음의 길을 열어 보이는 것으로 자비희사(慈悲喜捨)의 사무람심을 설법하셨습니다. <쌍웃따니까야>를 읽어보십시오. 500페이지의 열권으로 정리되어 방대한 분량입니다만 체계적으로 붓다의 설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앙굿따라니까야>는 초심자가 읽기에 무리일 수 있습니다만 법수(法數)를 따라 단계별로 11단계까지 분류되어 있습니다. 수행 교화는 실천실수(實參實修)를 통한 교화로써 팔정도를 중심으로 수행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실천 교화는 중생구제 활동을 통한 교화입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화하였고, 중생이 너그럽게 이물기를 실천하셨습니다.

붓다 설법의 특징은 대기설법입니다. 응병여약(應病與藥)이라고 하지요. 근기에 따라 설법하시되 표준 근기는 중품중생의 부정취 중생입니다. 깨달음을 향한 선근의 종자를 지닌 중생을 의미합니다. 먼저 비구 · 비구니에게 그리고 우바세 · 우바이에게 법을 설하였고 그 다음에는 외도들을 위하여 설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접할하는 재가불자 인제의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지도력을 갖춘 우바세 · 우바이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겠습니다. 합당한 위의를 갖출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토양을 가꿔야 할 것입니다. 팔정도 법회의 활성화에도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성제의 체득을 위해 수행을 통해 정진해 나가시길 권유합니다. 그 시작은 관찰이며 분석하고 판단함을 통해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리=기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사진=박재원 기자 jwpark@buddhapia.com

판매사원 모집

당사는 불교계에 새로운 선물을 일으켜 세울 시청각 불경학습기(아이센스 T-108)를 개발하여 판매할 영업사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모집대상	인원	자격조건	비고
판매사원	00명	1. 불자님 우대 2. 한력 나이제한없음 (남, 여) 3. 차량소유자 우대	월수입 300만원이상 고수익 보장
관리사원	0명	1. 상담경력자 2. 전산경력자	우대

2. 모집요강

- 1) 급여조건 : 면접 후 결정
- 2) 모집기간 : 2008년 6월 5일까지
- 3) 모집방법 : 1차 서류면접, 2차 실무자면접
- 4) 접수서류 : 이력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5) 접수방법 : 이메일 jjw5669@hanmail.net

3. 기타

• 위치: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01-6 상희빌딩 3층
 TEL 02)2666-0678 (대)
 H·P 010-6299-5651

주식회사 도연 아카데미

발로해

(특수기능성 두안족열 양말)



- **줄수행 최고의 수행도우미!** (법당에서, 참선, 명상, 성지순례, 등산, 운전, 고시수험생)
- **양말 내부의 금강저문양과 도트에서 노폐물, 독소, 나쁜기운 빼는 특급비밀!**
- **신는 순간 발이 따뜻해지며 매끈매끈, 보들보들, 보습보습 100%보장!**

※KBS (성로봉사의비밀, VJ특공대, 감성매거진 행복안오우) 출연
 SBS (0.2평의 기적) 출연 BBS (불교방송 (무명술 뷔이) 출연)
 동아일보 한겨레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등 기사 다수

특별판매가: 2만원 (배송비)
 주문처: 서울법당 (02)-456-0035
 부산법당 (051)-583-7886
 대구법당 (053)-743-0063
 인터넷한글도메인: www.법왕정사.kr

본가일두스님의 수맥파상담

"지금 당신에 침실은 안전합니까"
 수맥파를 알면 가정이 편안 합니다.

만병의 원인 수맥파

법당에 들어서면 무서운 오싹한기분 냉기가 들고 신도가 줄어 들고 의욕이 떨어지고 머리가 아프고 신경질적이고 매사 되는일이 없고 다들이생기고 학생은 성적 떨어지고 짜증만내고 남편은 귀가 늦고 부부싸움이 잦고 법당, 사업장, 주택 사무실, 기타영업장에도 사업이 부진하고 원인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병에 시달리고 악몽, 귀뚜라미 같은 잡음, 못자고 생체리듬파괴 각종 암, 중풍, 관절염, 심장질환, 학습장애, 면역력이 떨어져 생기는 모든 건강문제!
 식욕부진, 만성 소화불량, 신경통, 고혈압, 뚜렷한 병명없이 원인을 병에 시달리는 분.

만약 수맥파 위에서 잠을 자거나 근무한다면 당신은 이미 병들었거나 병들 위험이 매우 큽니다. 수맥탐사 1급 자격증 소지한 일두 스님이 탐사를 도와 드리고 수맥을 중화 시키거나 차단하고 미세한 수맥은 자리아동을 시켜서 수맥파에서 해방되도록 도와드립니다. 귀 사찰이나 단체에서 원하시면 생활수맥 결의를 경기도 서울지역은 출장 감의를 해드립니다.
 2-3시간 교육으로 수맥을 찾아낼 수 있도록 기본 교육을 시켜드리고 집자리 이동을 가능하게 교육시켜 드립니다.
 수맥을 중화 차단하고 난 후 약 5-7일간 경험해보신 후에 임금을 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건강을 찾을 수 있는 해법이 있습니다.
 궁금하신점 문의하여주세요.
 사찰의 주지스님 및 단체 개인분들께서 연락 주시면 성심 성의로 수맥 다우정(탐사)을 해드립니다.

02)391-8540 / 010-6395-1644

한국 생활불교 조계종 (사단법인) 수맥협회 자문위원
 본각사 일두 합장

부 고

원적 영금사 주지 법선당 대선사께서 2008년 5월 10일 오후 7시 50분에 열반하셨기에 이에 부고함.

- 법선당 대선사 장례위원회 명단 -

- ◆ 증 명 : 일휴, 원행, 운봉, 용운, 경덕
- ◆ 장례위원장 : 원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인봉) 선혜
- ◆ 고 문 : 법광, 원봉, 보광, 현각, 경혜
- ◆ 봉행위원장 : 정선
- ◆ 봉행부위원장 : 무이, 정오, 범승, 선광, 정수
- ◆ 봉 행 위 원 : 성운, 덕화, 도진, 현오, 청산, 법안 외 원주사암연합회 일동
- ◆ 집행위원장 : 원주불교신도연합회 회장 (자운) 원건상
- ◆ 집행부위원장 : 원주불교 각 신학단체장
- ◆ 집 행 위 원 : 원주불교 신도연합회 사무국임원
- ◆ 상 주 : 박운진 (무상심) 김명자 외 재가 제자
- ◆ 호 상 : 법진(석중), (각하)범룡, (일호)범중, 혜영, 덕화, 여운문도 일동.
 영금사 신도회장 권영도, 김수복, 김재숙
- ◆ 문 상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 3리
- ◆ 발 인 : 2008년 5월 14일 오전 9시 영금사
- ◆ 장 지 : 원주시립 화장장
- ◆ 전 화 : 033)763-4115 / 핸드 폰 017-739-1414

원주시 불교 사암연합회 장례위원회